

광주시,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광주시가 임산부 직장인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근무환경을 제공,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패키지'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지역 거주 임산부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직장생활패키지'는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 세 가지 서비스로 알차게 구성됐다. 지난해와 다르게 직장생활 꾸러미는 지난해 이용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따라 일부 품목을 변경했다.

'임산부 전용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가 아닌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해 제작됐다. 등판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접이식 발 받침대가 있어 다리 부종 방지에 효과적이며, 최대 180도까지 늘릴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라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대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산부 직장인 대상... 23일부터 접수
올해로 6년째 이용만족도 100%... 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호응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이며, 신청 시 설치부터 수거까지 무료로 관리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의자와 함께 제공하는 '직장생활꾸러미'는 일반적인 임산부 용품과 차별화해 실제 직장생활에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받침대, 전자파 방지 담요, 육아대백과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새롭게 제안된 틈살크림, 입덧방지식품, 디데이(D-DAY) 달력이 추가돼 총 6종의 물품으로 꾸러졌다.

'노무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전화나 메일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동·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 직원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사업주는 체계적인 제도 운영으로 서로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출산휴가 1개월 전 임산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

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본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광주 근무자가 300인 미만 규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친화인증 받은 중소기업·기관도 포함된다.

접수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jdy2021@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상세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광주시 누리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패키지를 이용한 한 사업장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고, 패키지를 받는 날 축하 분위기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지원사업을 이용한 한 임산부 직원도 "중소기업이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배려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광훈 기자



광산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총력'

광주 광산구가 해빙기를 앞두고 지난 반 약화로 인한 붕괴·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3일부터 안전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해빙기(2월~4월)는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건축물 붕괴나 낙석, 도로 파임(포트홀) 등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2월과 3월 사이 발생한 해빙기 관련사고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 173건(54.2%) △산사사고(낙석·낙빙 등) 58건(18.2%) △열을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이러한 계절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선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재난취약시설 등 52개소다.

점검은 민간 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물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급경사지 사면 안정성 △재난취약시설 구조 안전성 등이며 기초지반 침하 여부, 구조물 균열·파손, 비탈면 토사 유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내려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대응 강도를 높였다.

광산구는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N1지구(도로절개지)·산월N1지구(산지비탈면)에 사면 정비 및 옹벽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주민 불안

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큰 시기"라며 "빈틈없는 선제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광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준행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연대와 지원을 기반으로 따뜻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억6000만원 규모의 '2026년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배움·체육·이름) ▲아파트공동체(배움·체육·이름) ▲기획(사회문제 해결·도시공원 연계·협력사업·소통방) ▲특성화(여성가족친화마을) 등 4개 부문 11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서구는 약 98개 주민모임 및 단체를 선정해 모임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서구, 마을공동체 '생활 플랫폼'으로 육성

4개 부문 11개 분야 공모... 98개 단체 선정, 최대 800만원 지원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시공원 연계' 분야를 새롭게 도입했다. 서구는 공원을 자치·돌봄·문화·교육이 어우러지는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해 주민 삶과 밀착된 공동체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마을·아파트공동체전문지원단을 구성해 공동체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돕는다.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과 회계실무(보탬) 지원단도 함께 운영해 사업의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모임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주민자치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rkh0906@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오는 24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모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마을공동체 컨설팅 일정을 안내한다.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마을공동체 컨설팅학과 현장컨설팅을 운영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정하게 연결되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업체를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주민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북구 내에서 생산 및 제공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등의 물품과 ▲숙박권 ▲입장권 ▲식사권 ▲돌봄 서비스 등은 모두 답례품이 될 수 있다. 품목별 가격대는 배송비를 제외한 최저

북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오는 27일까지 서류 접수 및 다음 달 중 최종 선정

1만 원부터 최고 600만 원까지이다. 다만,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제외된다.

공모 참여 업체는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업체의 생산 능력, 답례품 상징성, 상품

우수성,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월 중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2028년 12월까지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북구청 주민자치과로 방문 제

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답례품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고향사랑기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기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우·한돈, 무등산수박, 전라도김치, 각종 식사·체험권 등 총 139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광주신산업선은 장성 철단3지구 연구개발특구에서 출발해 철단·2지구, 진곡·하남산단, 신창·운남·하남·선운지구 등을 거쳐 광주송정역과 평동산단,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결한다. 이어 함평 문정지역과 영광 대마산단을 경유해 서해안 철도 영광으로 연결될 계획이다.

광주신산업선에는 영광에서 생산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열차를 도입한다. 대내외적으로는 'HTX(Hydrogen Train Express)'로 명명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전액 국비 조성으로 추진하며, 운영비도 전액 국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

다.

광주송정역이 교통물류 거점으로 지정되고 광주신산업선과 연계되면 철도-항공-항만을 아우르는 복합물류체계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역은 국토 서남권 관문이자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송정역은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철도-항공-항만을 연결하는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며 "통합특별법 특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라이포트 구축과 광주신산업선 국가계획 반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특별법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글로벌 트라이포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부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